

**예수님은 ‘너희 중의 한 사람’이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.** 가장 가까이  
에 있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. 제자들은 몹시 근  
심하며 “나는 아니지요?” 하고 물었지만, 예수님을 팔게 될 당사자 유다는 그저 ‘대  
답’하는 수준으로 반응합니다. 다른 제자들은 ‘주여!’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, 유다  
는 ‘답비여’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객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. 유다에게  
있어 예수님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‘선생’인 것입니다.

**나에게 예수님은 ‘주님’(master)입니까, ‘선생’입니까?** ‘주님’의 말씀은 엄중  
한 명령으로 받지만, ‘선생’의 말은 취사선택의 대상이 됩니다. 주님을 배신하는 것  
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만, 선생을 바꾸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다가옵니다. 그  
럼에도 제자들이나 가롯 유다나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. 예수님을 ‘주님’이라  
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걱정하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. 그저 “나는 아니지  
요?”(Surely not I, Lord?, NIV)라고 묻고 있습니다. 잠시 후 일어날 일들로 보건대 그들  
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물어야만 했습니다. “혹시 제가 그 사람입니까?”

**제자들은 왜 자신은 아니라고 확신했을까요?** 어쩌면 확신이 아니라 불안함  
을 감추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. 그간의 성품이나 행적을 떠올리며 가능성  
있는 범인을 추리고, 애써 나일 가능성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. 그의 죄는 그의  
죄이며, 나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. 결국, 범인은 가롯 유다임이 밝혀졌습니다. 그  
러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. “네가 말하였도  
다”(마 26:25). 예수님의 대답은 가롯 유다에게뿐 아니라 ‘나는 아니지요?’라고 물었  
던 모든 제자를 향한 답변 아니었을까요?

나에게 예수님은  
어떤 분입니까?

- ① 주님입니까, 선생입니까?
- ② 나는 본문 중 어떤 제자에 가깝습니까?